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TORY

로마서 13 주차 (롬 4:9-17)
(2017년 4월 2일 - 2017년 4월 8일)
(제5권 13호)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TORY** 제5 권 – 제13 호

창간일: 2014년 11월 2일

발간일: 2017년 4월 2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개정

헬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th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IGARTENSIA (1997)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Jeonghan Lee (얼바인 온누리교회 집사)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6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에는 조건이 없다 (주일)

오늘의 본문 (롬4:9~10)

- ⁹ Ὁ μακαρισμὸς οὖν οὗτος ἐπὶ τὴν περιτομὴν ἢ καὶ ἐπὶ τὴν ἀκροβυστίαν;
(그런 즉, 이 축복이 할례자에게나? 또는 무할례자에게도나?)
λέγομεν γάρ· (왜냐하면 우리가 말한다)
ἐλογίσθη τῷ Ἀβραάμ ἡ πίστις εἰς δικαιοσύνην.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
- ¹⁰ πῶς οὖν ἐλογίσθη; (그러므로 어떻게 여겨졌는가?)
ἐν περιτομῇ ἢ ἐν ἀκροβυστίᾳ; (할례 상태에서인가? 무할례 상태에서인가?)
οὐκ ἐν περιτομῇ ἀλλ' ἐν ἀκροβυστίᾳ· (할례 상태가 아니라 무할례 상태에서다)
- ¹¹ καὶ σημεῖον ἔλαβεν περιτομῆς (그가 할례의 표를 받았다)
σφραγίδα τῆς δικαιοσύνης τῆς πίστεως τῆς (믿음으로부터 나온 의로 인치심을 받은)
ἐν τῇ ἀκροβυστίᾳ, (무할례 상태에서)
εἰς τὸ εἶναι αὐτὸν πατέρα πάντων τῶν πιστευόντων δι' ἀκροβυστίας,
(그가 무할례를 통해 믿는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
εἰς τὸ λογισθῆναι [καὶ] αὐτοῖς [τὴν] δικαιοσύνην, (그들이 의롭다 여김을 받도록)
- ¹² καὶ πατέρα περιτομῆς τοῖς οὐκ ἐκ περιτομῆς μόνον (할례를 통해 나온 할례자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ἀλλὰ καὶ τοῖς στοιχοῦσιν τοῖς ἔχουσιν τῆς ἐν ἀκροβυστίᾳ πίστεως τοῦ πατρὸς ἡμῶν Ἀβραάμ.
(무할례 상태에서 믿은 우리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지취를 따르는 사람들의 조상도 된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여긴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그를 통해 인류 구원을 약속하고 그 구원이 어떻게 달성될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의 일생은 하나님의 섭리 그 자체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부터 이미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속을 계획하셨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은 단지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특별한 민족의 조상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대표하여 언약을 받은 자다.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 과정을 보여 주셨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증표로 생각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할례받은 사건을 근거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누구든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실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신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할례가 처음 등장하는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자.

“¹⁰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¹¹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¹²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지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무론하고 난지 팔일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¹³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¹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창 17:10-14).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속한 남자들은 모두 할례를 받으라고 명하셨다. 할례에 대한 규례는 비단 이스라엘 백성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도 포함된다. 이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명령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하셨고 언약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표시하는 징표이기 때문이다. 이 명령만 놓고 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예외없이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명했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유대인들의 주장에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같은 유대인들의 생각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상태였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취소 불가능한 약속을 하셨다.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의로운 상태였고 할례는 그 후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이미 의로운 상태였고 할례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로 행한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기 전에 먼저 그를 의롭다 하신 이유가 무할례 상태에서 믿음으로부터 나온 의로 인치심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후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역사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몸소 보여주었다. 그들이 역사를 통해 보여준 것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율법을 지켜내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통해 그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잣대로 자신들이 얼마나 의로운지를 보여주고자 무던히도 애썼다. 할례는 그런 수많은 잣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것이었다.

율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율법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셨을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즉,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인간이 열심히 행함으로써 스스로 의를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와는 정반대로 율법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인간들이 절대로 도달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다. 따라서 할례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외적으로 표출된 가장 확실한 표증일 뿐이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할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할례는 강제 규정이 아니며, 할례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기 위해 인간 측에서 해야 할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모습 그대로 부르시고 품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바울은 자기 제자 중 하나였던 디도에 게는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다. 디도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였는데 만약 그에게 할례를 베푼다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필수적인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었다. 하지만 디도와는 달리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도록 했다.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는 디모데가 모계 혈통을 따르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유대 관습에 따라 유대인인 디모데를 할례 받게 함으로써 유대인들 앞에서 할례를 빌미로 복음이 비난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사실 할례는 단순히 칼로 남자의 생식기 포피를 베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할례는 구원의 선행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구원 받기 위해 인간 측에서 뭔가 사전에 해야 할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아니,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이 더 적절하다. 한국인이라면 흔히들 하는 말이 술 담배를 끊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과 구원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무 조건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셨다.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이고 은혜인 것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했나요? 당신이 구원받은 근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있는 그대로를 받아 주시는 하나님 (월요일)

오늘의 본문 (롬4:9~10)

- ⁹ Ὁ μακαρισμὸς οὖν οὗτος ἐπὶ τὴν περιτομὴν ἢ καὶ ἐπὶ τὴν ἀκροβυστίαν;
(그런 즉, 이 축복이 할례자에게나? 또는 무할례자에게도나?)
λέγομεν γάρ· (왜냐하면 우리가 말한다)
ἐλογίσθη τῷ Ἀβραάμ ἡ πίστις εἰς δικαιοσύνην.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
- ¹⁰ πῶς οὖν ἐλογίσθη; (그러므로 어떻게 여겨졌는가?)
ἐν περιτομῇ ἢ ἐν ἀκροβυστίᾳ; (할례 상태에서인가? 무할례 상태에서인가?)
οὐκ ἐν περιτομῇ ἀλλ' ἐν ἀκροβυστίᾳ· (할례 상태가 아니라 무할례 상태에서다)
- ¹¹ καὶ σημεῖον ἔλαβεν περιτομῆς (그가 할례의 표를 받았다)
σφραγίδα τῆς δικαιοσύνης τῆς πίστεως τῆς (믿음으로부터 나온 의로 인치심을 받은)
ἐν τῇ ἀκροβυστίᾳ, (무할례 상태에서)
εἰς τὸ εἶναι αὐτὸν πατέρα πάντων τῶν πιστευόντων δι' ἀκροβυστίας,
(그가 무할례를 통해 믿는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
εἰς τὸ λογισθῆναι [καὶ] αὐτοῖς [τὴν] δικαιοσύνην, (그들이 의롭다 여김을 받도록)
- ¹² καὶ πατέρα περιτομῆς τοῖς οὐκ ἐκ περιτομῆς μόνον (할례를 통해 나온 할례자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ἀλλὰ καὶ τοῖς στοιχοῦσιν τοῖς ἔχουσιν τῆς ἐν ἀκροβυστίᾳ πίστεως τοῦ πατρὸς ἡμῶν Ἀβραάμ.
(무할례상태에서 믿은 우리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의 조상도 된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하셨다. 의로움이란 도덕적 완전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의로움은 창조주인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자기들 기준으로 의롭다 선언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다. 인간들이 아무리 애를 써서 선한 행동을 하고 또 자기들 기준으로 의롭다 여길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의로움의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판단도 하나님이 하시며 하나님에 의해 선포되는 것이다. 의로움을 얻는 과정에서 인간은 철저히 수동적이다.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의를 얻는 건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예를 하나 들어 보자. 어떤 사람이 있다. 그는 평소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다. 그런 그가 신명기를 읽으면서 삶의 목표가 생겼다. 신명기의 기록대로만 살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얻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때부터 그는 다른 신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겼다. 십계명은 물론이고 다른 모든 사회법도 잘 지켰다. 그뿐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기에 불의하고 불경건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은 무엇이든 하지 않았다. 당연히 그의 신앙 생활도 매우 철저했다. 십일조를 거른 적도 없고 주일 성수는 당연했다. 주일 예배는 생활의 일부였고, 어쩌다 해외 출장이라도 겹치면 출장지에서라도 교회를 찾아 예배를 드렸다. 교회에서 그는 신앙인의 모델이었다. 그는 자기처럼 살지 못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사람들을 진정한 신앙인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율법이든 도덕이든 사회법이든 제대로 지키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 해도 진정한 성도가 아니라 생각했다.

그런데 이런 사람과 정반대의 또 다른 사람이 있다. 물론 그도 하나님을 믿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율법을 철

저하게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살다보니 생각지도 못한 이런저런 일들을 겪게 되었다. 그 때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하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이 들었다.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권하는 술을 매번 거절하는 것도 고역이었고 특히 회사에서 업무상 접대를 하는 경우에는 하기 싫어도 어쩔 수없이 고객의 비위를 맞추어야만 했다. 밖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마음 속으로 범하는 죄들은 통제하기 어려웠다. 수시로 불쑥불쑥 찾아 오는 음란한 생각들, 겉으로는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온갖 저주를 퍼붓기도 하고, 현금조차도 가끔씩은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솔직히 이런 자신을 보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 두 사람은 신앙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누구나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절제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것이다. 사실 세상과 적당히 타협 하면서 인간의 속물적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들조차 전자를 부러워한다. 문제는 인간의 의로움을 선언 하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아무리 인간이 의를 얻고자 노력해도 그 결과물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다면 인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판단 기준을 알 수 있을까?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쉽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난 사람들, 의롭다고 선언한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된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음을 얻은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 의롭다고 선언을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 능력으로는 어떠한 의로움도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한마디로 의로움에 관한 한 자포자기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와중에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을 비난한 일련의 무리들이 있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살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그들은 예수의 가르침과 행동을 따르는 자들이 늘어나면 언젠간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과 대립각을 세웠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그랬었다. 훗날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된 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회상했다.

“⁴³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⁴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합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 있었으나”(갈 1:13-14).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도덕적으로 영망진창으로 산 사람이 아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율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았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다. 의로움은 자신이 그 동안 지켜왔던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어진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이 율법을 주시기 전이었고, 심지어 할례를 명하기 훨씬 이전임을 알았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받을 당시 그가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한 적이 있는가? 그저 제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탄 남자에게 팔아버린 사람이다. 전쟁통에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그는 앞뒤 재보지도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해서 전쟁에 나섰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언약을 이루어가셔야 하는데 그는 하나님께 여쭙보지도 않고 먼저 앞서 나갔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를 의롭다 하셨다. 당신은 어떤가? 과거의 실수로 고민하고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어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건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진 않은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를 보시는 분이 아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라. 그러면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까?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을 통하여 (화요일)

오늘의 본문 (롬4:13)

¹³ Οὐ γὰρ διὰ νόμου ἡ ἐπαγγελία τῷ Ἀβραάμ ἢ τῷ σπέρματι αὐτοῦ,
(아브라함 또는 그의 후손에게 한 약속은 율법을 통한 것이 아니다)
τὸ κληρονόμον αὐτὸν εἶναι κόσμου, (그가 세상의 후사가 될 것이다)
ἀλλὰ διὰ δικαιοσύνης πίστεως. (오직 믿음의 의를 통한 것이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다. 그들이 무슨 의로운 행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또 다시 인간의 의가 율법이 아닌 믿음을 통해서 온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은 반복적이고 대단히 집요하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토록 집요하게 인간의 의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지 결코 율법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가?

아주 단순하게 답하자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보다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 구원 받으려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무기로 이방인들을 공격했다. 율법없이 살아 온 이방인들이 아무런 통과의례도 없이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리 탐탁잖아 보였을 것이다. 바울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며 모진 고난의 시절을 살아 온 유대인들만 바보가 되고 만다. 도대체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이길래 그들이 그렇게도 애지중지 여겨온 율법이 아무런 기준이 되지 못한단 말인가?

생각해 보라. 그들은 태어난 지 팔일만에 할례를 받았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증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외없이 할례를 받았다. 이방인들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유대교에 입교할 수 있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과정조차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의 율법은 단지 할례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알다시피 그들은 돼지 고기를 먹지 않았다. 아니,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혐오했다. 율법에서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먹는 걸 금하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과거에 먹던 음식 그대로 아무거나 먹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최소한 할례를 행하고 음식 규례도 지키며 율법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은 최소한의 통과의례는 고사하고 백성으로서 지켜야 하는 다른 여러 가지 규례도 전혀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쉽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사실 이러한 주장은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 동안 보여주신 것과도 정확히 일치한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신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나중엔 감히 대들기까지 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리자 보다 못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힐난조로 이렇게 질문을 한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막 2:16).

인간들은 본성적으로 자신의 잘난 것을 드러내려 한다. 누구나 타인에 비해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

이 무엇이든 자랑하고 싶어한다. 율법은 유대인들이 도덕적, 법적으로 비교 우위에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좋은 도구였다.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차별했다. 물론 바울도 그랬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기독교가 점점 확대되어 가자 기존의 종교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단들을 썩부터 잘라내야 한다는 일념으로 기독교 말살에 발 벗고 나섰던 장본인이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바로 자신과 같은 유대인이든 율법을 모르던 이방인이든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다. 유대인들은 그런 그를 공공의 적으로 여겼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조직적인 방해 공작을 일삼았다. 그들뿐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기 일쑤였다. 소위 메신저를 공격함으로 메시지를 무력화하려 한 것이다. 그런 그들을 향해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변호했다.

“²²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²³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군이냐 정신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번 죽을뻔 하였으니 ²⁴ 유대인들에게 사십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번 맞았으며 ²⁵ 세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깊은에서 지냈으며 ²⁶ 여러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²⁷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고후 11:22-27).

바울은 자기 목숨까지 내걸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공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설파했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잠시 받는 환란 때문에 진리를 왜곡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우리들은 바로 그 진리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술주정뱅이건 술을 입에 대지도 못하는 사람이건 모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배우자와 백년을 해로한 사람이건 이혼한 사람이건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흔히들 하나님을 믿으면 술도 끊게 되고 가정도 회복된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꼭 그렇지도 않다. 믿음 좋은 분들 중에도 불가피하게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 믿는 사람들 중에 여전히 술을 끊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의의 선언을 하나님이 결코 철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기준으로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믿는 것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이다. 구원의 시작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었다. 그렇다면 그 자격을 유지하게 하는 것도 오직 믿음뿐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 과정에서 당신이 한 일을 무엇입니까?

믿음을 무효화 하지 말라 (수요일)

오늘의 본문 (롬4:14-15)

- ¹⁴ εἰ γὰρ οἱ ἐκ νόμου κληρονόμοι, (만약 율법으로부터 나온 이들이 후사가 된다면)
κεκένωται ἡ πίστις (믿음은 무효화되고)
καὶ κατήργηται ἡ ἐπαγγελία· (약속은 폐하여졌다)
- ¹⁵ ὁ γὰρ νόμος ὀργὴν καταργᾷ· (왜냐하면 율법은 진노를 만들어낸다)
οὐδὲ οὐκ ἔστιν νόμος οὐδὲ παράβασις, (만일 율법이 없으면 범죄함도 없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던 셈족의 후예 아브라함을 아무런 조건없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에게 유업으로 주셨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일방적인 축복을 약속받은 아브라함은 너무도 황홀했을 것이다. 그는 기꺼이 정든 고향을 떠나 낯선 이방 땅 가나안으로 들어왔다. 식솔들이 있기는 했지만 사실 혈혈단신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이후 그의 삶은 파란만장했다.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기근을 만났고, 할 수 없이 이집트로 내려가야 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일생일대의 과오를 범한다.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여 바로에게 보내버린 것이다. 그것도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다. 그는 사라가 이삭을 가진 상태에서 또 다시 아내를 누이라 속여 아비멜렉에게 보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단 한번도 아브라함을 질책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속아 사라를 집으로 들였던 바로와 아비멜렉이 혼쭐이 났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든 아브라함 편이셨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타인들에 비해 월등히 뛰어난 성품을 지녔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다. 그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성정을 가졌고 자기 목숨 하나 지키고자 임기응변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던 나약한 범부였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떠한가?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나은 게 있을까? 창세기에 이삭에 대한 기록은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들 야곱에 비해 분량이 매우 적다. 창세기에 기록된 이삭의 모습은 연약하고, 고집스러우며, 비겁하기까지 하다. 부전자전인가? 그는 아버지와 똑같은 실수를 범한다.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 속여 리브가를 집으로 들였던 아비멜렉을 곤란한 지경에 빠뜨렸다. 솔직히 말해 이삭에게 약속의 자녀다운 멋진 모습을 찾기는 어렵다. 그가 노년에 두 아들에게 유언을 할 때에는 눈이 어두워 제대로 식별도 못해서 엉뚱하게 둘째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는 바람에 정작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 에서에게는 단 하나의 축복도 하지 못했다. 속인 야곱과 그와 공모한 아내 리브가도 문제지만 정작 이를 간파하지 못한 이삭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그는 그렇게 살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다. 그에게서 모세와 같은 지도력, 여호수아와 같은 용맹함, 갈렙과 같은 충성심, 다윗과 같은 신실함,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찾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도대체 그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내세울 만한 것이 뭐가 있는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대에 이르면 그야말로 절망이다. 하나님은 고르고 골라도 어떻게 이런 사람들만 고르시는지 의아할 정도다. 솔직히 말해 인간적으로는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낫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만약 에서와 야곱 중에서 사윗감을 고르라면 에서를 선택할 분들이 많을 것이다. 다 큰 사내인데도 엄마 품안에서 집돌이인데 다 아버지에게 남을 속여 먹는 야곱보다야 밖에서 용감하게 사냥도 하고 요리까지 잘 하는 성격 화끈한 에서가 여러모로 낫지 않겠는가? 아버지가 축복을 할 때도 에서는 직접 사냥해 온 짐승으로 손수 요리까지 해서 드렸다. 하지만 야곱은 집에서 기르고 있던 염소를 갖고와서는 요리도 직접 한 게 아니라 어머니 리브가가 했다. 게다가

아버지를 감쪽같이 속이기 위해 털로 위장하는 것도 다 엄마의 작품이었다. 그가 아버지 이삭에게 들고 간 것은 아버지의 염소 고기였고, 그가 입은 옷은 형 에서의 옷이었으며, 팔에 위장한 털도 아버지 염소에서 벗겨낸 가죽이었다. 야곱은 스스로의 모습과 능력으로는 아버지의 축복조차 받을 수 없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였다.

그들이 유대인들의 조상이다. 하나같이 비겁하고, 모두가 임기응변식으로 상황에 따라 변신을 거듭했을 뿐 그들의 삶에서 본받을 만한 점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범부들이다. 그들이 남보다 특별히 도덕적인 것도 아니다. 직접적 비교는 무리겠지만 지금 우리들보다 더 낫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은 비단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게다. 사실 아무리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지레 겁을 먹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여 다른 남자에게 보내는 남편이 어디 있는가? 게다가 아무리 축복이 좋다해도 어머니와 공모하여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축복을 받아내려는 자식이 누가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셨다. 하나님이 에서 대신 야곱을 선택한 사실, 그리고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야곱이 받은 축복을 인정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문제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했다.

“9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10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11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2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13 기록된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14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롬 9:9-14).

만약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이 인간의 행위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그래서 행위의 결과로 하나님이 의를 판단한다면 결국 인간의 의는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정말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두 기준에 턱없이 미달한 자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 구원하셨다. 그냥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약속의 자녀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시면 그만이다. 그 외에 다른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 얼마나 다행인가? 만약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를 기준으로 의로움을 평가하신다면 과연 누가 그 기준선을 통과할 수 있을까? 성전에서 기도했던 그 세리는 어떨까? 거지 나사로는 과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은? 게다가 우리는? (나는? 당신은?) 정말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그러니 행위에 집착하여 믿음을 등한시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아니냐를 하나님 자녀됨의 근거로 삼으신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입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당신은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생각합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다 (목요일)

오늘의 본문 (롬4:14-15)

- ¹⁴ εἰ γὰρ οἱ ἐκ νόμου κληρονόμοι, (만약 율법으로부터 나온 이들이 후사가 된다면)
κεκένωται ἡ πίστις (믿음은 무효화되고)
καὶ κατήργηται ἡ ἐπαγγελία· (약속은 폐하여졌다)
- ¹⁵ ὁ γὰρ νόμος ὄργην κατεργάζεται· (왜냐하면 율법은 진노를 만들어낸다)
οὐδὲ οὐκ ἔστιν νόμος οὐδὲ παράβασις· (만일 율법이 없으면 범죄함도 없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준도,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유지하는 기준도,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기준도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도덕이나 관습과 구분하지 못하고 각 민족이나 나라들이 서로 다르게 형성해온 준거들을 율법으로 생각한다. 예를 들어 한국 기독교인들의 경우 술에 대해 매우 엄격한 편이다. 유럽에서는 일종의 음료수인 맥주조차 한국 교회에서는 금기시한다. 엄밀히 말해 한국 교회에서는 술을 마시는 것은 반기독교적인 행위로 간주된다. 참으로 아이러니 한 것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행하신 첫 이적이 포도주를 만드신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독교는 유난히 술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들이댄다.

말이 나온 김에 술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 술을 먹으면 건전하지 못한 신앙인이거나 또는 술을 먹는 게 죄라고 하자. 한국 교회에서는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이 가정을 받아들이기로 하자. 그런데 실제로 한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유로 술을 피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한국 사회와 같이 술 권하는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솔직히 필자와 같은 목회자들은 술을 마실 기회조차 없었으니 금주가 당연한 거겠지 만 사회 생활을 하는 분들은 술자리를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업상, 분위기 상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게 된다. 또 어떤 분은 건강을 위해 술을 마시는 경우도 있다. 어떤 이유로든 술을 입에 대는 순간 그들은 한국 기독교 내의 관습법으로 자리잡은 ‘그리스도인은 술을 마시면 안된다’는 기준을 어기게 되고 결국 죄인으로 전락하게 된다. 그러면 흡연은 또 어떤가? 그리스도인이 흡연을 하면 영적으로 타락한 것일까? 성경에는 흡연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다. 그도 그럴 것이 담배가 처음 서구 유럽에 전해진 게 16세기라고 하니 예수님 당시에 배해 무려 1500년이 지난 뒤에 등장한 담배가 그리스도인을 엮매는 또 다른 도구라면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은가?

반면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돼지 삼겹살은 어떤가? 돼지 고기는 유대인들이 입에도 대지 않는 혐오 음식이다. 율법도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 당연히 돼지고기도 금해야 하는 것 아닌가? 분명 하나님이 돼지 고기를 금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한국인이 보양식으로 좋아하는 추어탕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다. 성경이 명한 정결 의식 또한 율법이 정하는 엄격한 기준의 하나다. 그럼에도 이 모든 규례가 우리 한국인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는 이유로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율법대로 행하는 유대인들을 비웃기까지 한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말하는 율법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우리 고유의 관습을 율법화해서 그것을 지켜내는 것을 좋은 신앙의 모범으로 여긴다. 물론 오랫동안 내려온 관습이나 규례를 벗어난 행동을 하면 공동체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는 있다. 그래서 사회에서 공동체가 합의한 것들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인간들이 초등학교에서 배운 윤리 도덕만 지켜도 사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사라질 것이다. 뭐 거창하게 율법이라는 말

까지 들먹일 필요도 없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들도 또한 그러하다.

사도 바울은 지금 율법을 언급하고 있다. 율법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이나 윤리와는 확연히 다르다. 하나님은 엄격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닫도록 하셨다. 인간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엎드리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인간들은 율법을 자신들의 의를 입증하는 도구로 착각하고 율법 자체를 우상화 했다. 바울은 의의 척도로서의 율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한다. 율법은 의를 보여주는 수단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율법이 사람들의 행위를 올바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사람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도구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바로 그런 이유로 이제는 율법을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는가? 절대 그럴 수 없다. 이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율법은 여전히 효력을 가진다. 그것으로 의로운 사람임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다 적극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단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그 자체에만 머물러서야 되겠는가? 의롭게 되는 것, 그래서 의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그 놀라운 사역으로 완성된다. 그런데 그 이후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

예수님은 율법을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압축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궁극적 의미라고 하셨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했다 (롬 13:10참조). 사랑은 소극적으로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적극적으로 이타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뭔가를 하지 않는 소극적 행위다.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사랑’이라는 적극적 행위를 만들어 내기란 어렵다. 그보다는 노숙자나 걸인을 만나면 그에게 단돈 1불이라도 손에 쥐어주는 것이 선행이고 사랑이다. 돈을 주면 버릇이 안 좋아진다거나, 그걸로 마약을 살 지도 모른다며 온갖 핑계로 거지를 외면하는 사람들은 결국 인색한 사람일 뿐이다. 적선이라는 행위는 거지의 행동이나 삶을 바꾸어 주는 데는 턱없이 모자란다. 겨우 한 끼 식사로 배를 채워주는 정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안에서 그를 도와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 무조건 지갑을 열어보라. 그리고 그의 손에 적은 금액이지만 돈을 쥐어주면 사랑은 그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다. 무엇을 하지 않았음을, 세상에서 비난 받는 사람들과 다름을 자랑하지 말라. 그건 당연한 것이지 자랑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한다.

“⁶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⁶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⁷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⁹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¹⁰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¹¹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¹²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빌 2:5-12).

묵상을 위한 질문

구원에 있어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구원 받은 이후의 삶에 율법은 또 어떤 역할을 하나요? 율법의 명령을 하나로 정의한다면 무엇일까요? 당신은 그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금요일)

오늘의 본문 (롬4:16-17)

- ¹⁶ Διὰ τοῦτο ἐκ πίστεως, ([후사가] 믿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ἵνα κατὰ χάριν, ([후사는] 은혜를 따르게 되고)
εἰς τὸ εἶναι βεβαίαν τὴν ἐπαγγελίαν παντὶ τῷ σπέρματι, (모든 후손들에게 약속이 확실해진다)
οὐ τῷ ἐκ τοῦ νόμου μόνον (율법으로부터 나온 사람들 뿐만 아니라)
ἀλλὰ καὶ τῷ ἐκ πίστεως Ἀβραάμ, (믿음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나온 사람들에게도)
ὃς ἐστὶν πατὴρ πάντων ἡμῶν, (그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다)
- ¹⁷ καθὼς γέγραπται (기록된 바와 같이)
ὅτι πατέρα πολλῶν ἐθνῶν τέθεικά σε,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세웠다)
κατέναντι οὗ ἐπίστευσεν θεοῦ (그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τοῦ ζῶντος τοὺς νεκροὺς (그는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고)
καὶ καλοῦντος τὰ μὴ ὄντα ὡς ὄντα.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자로 부르시는 분이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다. 16절에 ‘은혜’로 번역된 헬라어 카리스(χάρις)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내려 주시는 공짜 선물을 의미한다. 인간의 노력 여부는 은혜를 좌우하는 조건이 되지 못한다.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도 조건이 되지 못한다. 출신 성분도, 과거의 행적도, 공동체에 대한 공헌 여부도 은혜를 결정하는 조건이 될 수 없다. 은혜리는 것은 받는 자의 자격을 따지지 않을 때 비로소 그 의미가 드러나는 단어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되 인간들에게 아무런 조건을 내세우지 않으셨다. 바울은 구원에 아무런 차별이 없음을 이렇게 설명했다.

“²⁶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²⁷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입었느니라 ²⁸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²⁹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갈 3:26-29).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해서도 아니다. 태어나서부터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도 아니요, 유대인들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다. 오직 믿음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생긴 이 믿음조차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을 들으면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한 일이란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된다. 바울의 이야기를 더 들어 보자.

“⁸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⁹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엡 2:8-9).

바울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에게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이 아니라 믿음이다. 믿음조차 선물인 것이다. 복음서를 읽다보면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아픈 사연들

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물론 부자청년,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등등 예수님을 대적인 사람들도 감초처럼 등장한다.) 어떤 청년은 장남으로 태어나 평생을 장남으로 살았다. 게다가 가정 형편도 넉넉하지 못해 거지 노릇을 하면서 살았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 어떤 여인은 열두 해를 혈루병으로 고생을 하며 병을 고치기 위해 수많은 의사를 만나고 그 때문에 재산까지 다 날렸다. 세리로 살며 동족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던 삭개오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몸소 그들을 찾아가셨다. 얼핏 보기에는 길을 가다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일부러 그들을 만나기 위해 그 길로 가신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젯거리들을 해결한 걸 생각해보라. 그들이 행한 게 무엇이 있었는가? 그들이 그런 고통에서 벗어난 것이 그들의 노력 때문이었는가? 그렇지 않다. 100%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나같은 존재를 택해서 구원하셨을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송가를 작사한 휘틀 목사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 받은 후 이렇게 고백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이 자신을 구속해 주신 이유, 하나님이 자기를 자녀를 삼아 주시고 그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은 사람은 아직 구속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니다. 아무리 형편없는 삶을 살아도,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도, 남들 앞에 얼굴 들고 다니기 창피한 일이 많아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 그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지겠는가?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 쓸모없는 자였던 당신을 구원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맞다. 하지만 그 반대로 여전히 자신에게서 하나님이 구원할만한 조건을 발견하고 자랑하고 싶어한다면 그 사람은 다시 한 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보기를 권한다. 유감스럽지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가면을 쓴 율법주의자일 가능성이 높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나요? 그 믿음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당신 스스로의 의지로 믿게 되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건가요? 그렇다면 당신이 믿고 구원받은 과정에 당신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실이 당신에게 어떤 깨달음을 줍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토요일)

오늘의 본문 (롬4:16-17)

- ¹⁶ Διὰ τοῦτο ἐκ πίστεως, ([후사가] 믿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ἵνα κατὰ χάριν, ([후사는] 은혜를 따르게 되고)
 εἰς τὸ εἶναι βεβαίαν τὴν ἐπαγγελίαν παντὶ τῷ σπέρματι, (모든 후손들에게 약속이 확실해진다)
 οὐ τῷ ἐκ τοῦ νόμου μόνον (율법으로부터 나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ἀλλὰ καὶ τῷ ἐκ πίστεως Ἀβραάμ, (믿음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나온 사람들에게도)
 ὅς ἐστιν πατὴρ πάντων ἡμῶν, (그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다)
- ¹⁷ καθὼς γέγραπται (기록된 바와 같이)
 ὅτι πατέρα πολλῶν ἐθνῶν τέθεικά σε,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세웠다)
 κατέναντι οὐ ἐπίστευσεν θεοῦ (그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τοῦ ζῶντος τοὺς νεκροὺς (그는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고)
 καὶ καλοῦντος τὰ μὴ ὄντα ὡς ὄντα.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자로 부르시는 분이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성경에서 유대인의 상대적 개념은 이방인이다. 그리고 헬라인의 상대적 개념은 야만인이다. 이방인이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았고 그렇기에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존재들을 의미한다. 철학과 지혜에 능했던 헬라인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야만인이라 불렀는데 세상의 이치를 모르고 무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던 ‘차별’을 허무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자마자 그에게 율법을 주고 그 율법을 지켜 선민의 자격을 유지하라 하지 않으셨다. 그는 율법이 오기도 전에 부르심을 받았고, 아브라함과 다른 사람들을 구별하는 할례는 기준도 없을 때 믿음으로 그를 의롭다 하셨다. 하나님은 그의 나이 99세 때 할례를 명하셨고 그 할례는 언약 백성의 표징이 되었다. 바울은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후사가 된 것처럼 이방인들 역시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후사가 될 길을 열어 놓으셨음을 강조하고 있다. 당시 헬라인들은 또 하나의 걸림돌이었다. 팔레스틴 땅을 비롯해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근동 지방은 물론이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헬라 문화의 영향은 뿌리 깊었다. 헬라 문화의 핵심은 지혜였다. 그들은 인간의 이성을 강조했고 그 이성 안에서 세상의 모든 근본을 찾으려 애썼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눈에 비친 비이성적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그야말로 ‘야만’ 그 자체였다. 특히, 그들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도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다. 십자가에 못박혀 죽은 예수를 구주로 섬기고 목숨 걸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헬라인들의 눈에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들로 보일 리가 만무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태도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²²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²³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가 되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²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전 1:22-24).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다. 유대인들이 구한 표적은 율법의 행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언약 백성에 합류했다면 언약 백성으로 합당한 표적이 있어야 한다고 생

각했다. 그들이 구한 표적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할례다. 할례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실한 근거였기 때문이다. 반대로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다. 중죄인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를 믿는데 무슨 지혜가 필요하겠는가?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도저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그들의 신앙을 송두리째 버리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거리가 되는 것이 되었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복음이 그런 것이었으니 당연히 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눈엣가시처럼 성가신 존재였다.

하지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구별없이 누구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유일한 기준은 그리스도라고 말한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능력이고 표적이며 지혜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준은 단 하나,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기준이다. 유대인들이 가진 율법도 기준이 될 수 없고 헬라인들이 자랑하는 지혜도 근거가 될 수 없다. 물론 우리가 행하는 선한 행위도 아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근거가 될 뿐이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며 지레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세상에 찌든 모습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 걱정하기도 한다. 헌금도 제대로 못했기에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생활고 때문에 할 수 없이 주일에도 일해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괜한 자격지심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모습 그대로' 부르셨다. 그 부르심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겠다는 약속이 들어 있다.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 기준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데 인간들이 뭐라고 자꾸 토를 다는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그러니 제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나?'라고 남들을 비판하지 말았으면 한다. 남들의 삶을 자기 맘대로 정죄하지 말라. 우리 눈에 보기에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선택한 사람일지 어찌 알겠는가? 오직 자기 자신을 돌아 보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는데 힘쓰기를 권한다. 신앙은 시선을 타인에게로 향하고 그들의 삶을 고치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것이다. 나의 자격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자취를 따르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 하나님은 이방인인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주셨다. 야만인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진정한 지혜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다. 그보다 더 큰 은혜와 선물이 어디에 있겠는가?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렇다면 무슨 조건들을 따지고 무슨 기준을 들이댈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유일한 조건은 그리스도요 그를 믿는 믿음이다. 둘 모두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목상을 위한 질문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벽을 어떻게 허무셨습니까? 그 과정에서 당신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요?